

AI·정책·밸류 ‘삼박자’ 사천피 가시권… ‘체질 개선’ 숙제

‘코스피 5000 게이트’ 열릴까

장기적 주식시장 장밋빛 전망
외국인 매수세 코스피 견인
배당세 완화·상법개정 탄력
구조개혁·신산업 육성 과제

“이래도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안
올려나 유턴은 지능순 아닌가.”, “아직도
미장(미국시장)만 보는 개미가 있네요.”

16일 코스피가 3700선을 뚫자, 개미들이 모인 주식 관련 A 커뮤니티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대로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코스피 4000, 5000 시대가 열릴까.

이제껏 정부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
가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새
정부 정책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
가 커 단기 반등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
다. 장기적으로도 시중에 풀린 돈이 같
곳도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인
공지능(AI)과 빅테크 경제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밋빛 전
망의 배경이다.

기대감과 시장 친화 정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증시 ‘부스트 업’의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AI발 반도체 랠리, 4000 가시권

증권가에서는 '사천괴'(코스피 4000) 돌파가 가시권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증했던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회복과 실적 개선을 토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이날 삼성전자주는 97,700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코스코 1개월 상단을 3750으로 상향했다. 그는 "현재 코스코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배로, 단기 목표 11.6배는 최근 10년 평균에 표준편차를 가산한 수준"이라며 "지수로 환산하면 3750포인트"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확장 요인으로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3차 상법 개정) ▲연준의 완화 기조(자산 긴축 종료 시사)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향상을 꼽았다. 그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12조1000억원)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반도체가 한국 증시 이익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익 증가세가 빨라지는 만큼 코스피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 갈등과 원화 약세는 부담 요인"이라며 "그러나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는 한 강세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향

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시
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의 최고 세율
인하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와 의
회가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도 추

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코스피 5000 게이트’ 열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건 뭘까. 통상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기업의 펀더멘털(실적 등 기초체력)과 그 기업들이 속한 한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업구조상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반(反)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 걸림돌도 없애야 한다.

외국인이 지속해서 투자할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증시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에 편입시켜 안정적인 외국인 매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을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5000시대”는 허황한 공약이 아니다. 한국 증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 등을 밸류에이션 상승의 조건으로 꼽았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전자, 美서 잇단 피소 ‘합의금 압박형 소송’ 몸살

텍사스서 10건 이상 피소돼
누적 배상 평결액 1.4조 돌파

삼정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마셜 법원에서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특허로 수익을 얻는 비실시권자(NPE)들이 원고(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마셜 법원을 통해 합의금이나 배상액을 노린 이익 추구형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텍사스 마셜과 웨이코 관할에서 10건 이상 피소돼 누적 배상 판결액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G+커뮤니케이션즈 사건 재심에서 1억4200만달러(약 2016억 1160만원), 올해 10월 콜리전커뮤니케이션즈 사건에서는 4억4550만달러(6325억 2090만원) 배상 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미국 텍사스는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 관할지로 꼽힌다. 2025년 들어서는 전체 NPE 제소의 약 45%가 동부텍사스(EDTX)에 접수되는 등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배심원이 외국 대기업보다 개인 특허권자에 공감하

는 경향이 짝어 글로벌 기업들이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심원 제도 등 구조적 특징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고착화된 가운데, 텍사스 내 법원의 평균 1심 배상액 역시 타 관할보다 높은 추에 속해 원고가 합의금 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유리한 구조다. 애플·인텔 등 미국 기업들 역시 텍사스 내 사업 활동을 근거로 동일 소송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례로 애플은 텍사스 마셜 법원에서 진행된 옵티스 사건에서 LTE 특허 침해로 3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2025년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런 환경은 혁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액 평결과 방어비용 증가로 글로벌 IT기업들의 특허소송 대응비용은 연간 수십억달러에 이르며, NPE의 공격적 제소가 장기화할 경우 실질적인 연구·개발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미국 일부 주와 유럽권 몇몇 국가에서는 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정희준기자 nauta@

/정희준기자 nauta@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튼튼한 희망자산 노란우산

사장님 걱정,
탁! 떨어드릴게요!

홍보대사
탁재훈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167호(2024. 12. 24. ~ 2026. 1. 31.)